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KOFIH

Letter

Summer 2019 Vol.49

www.kofih.org

아프리카에 희망의 빛을 밝히다

아프리카 개발협력사업

KOFIH는 아프리카에 모자보건증진 사업을 비롯한 다양한 보건의료 지원사업을 통해 아프리카 지역의 보건의료 향상에 기여하며 새 희망을 전하고 있습니다.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KOFIH Letter

Summer 2019 Vol.49
www.kofih.org



발행일 2019년 8월 30일
정기간행물신고번호 서울 중 바 00157
재단발행자등록번호 정가-6-2019-1

발행인 추무진 | 편집인 최원일 | 발행처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주소 04533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6 재능교육빌딩 6, 7층 | 전화 02-3396-9700
기획·편집 KOFIH 경영기획부 02-3396-9830 | 취재·디자인·제작 이팝 02-514-7567

발행에 도움을 주신 보건복지부 및 보건의료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계간으로 발행되는 [KOFIH Letter]는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의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본지에 수록된 내용은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Contents

04	2019 KOFIH PROJECT MAP	KOFIH의 주요 사업 현황을 나타내는 인포그래픽
06	KOFIH LETTER	아프리카 지역과의 지속적인 협력 관계 형성에 힘쓰겠습니다

10	아프리카 톨아보기	변화와 혁신의 중심에 선 젊은 대륙, 아프리카
14	Global Report	KOFIH와 함께 빛나는 아프리카 일곱 개의 별
16	KOFIH 특과원	탄자니아에 흠뻑린 희망, 생명의 삽을 뜨다 - 탄자니아 모자보건증진 사업 '보건소 개소식 현장'
22	함께 그리고 멀리	지역민의 마음을 꿰뚫어 건강하게 빛나다 - 가나 '모자보건증진 사업' & '건강보험제도 협력사업'
24	리멤버 포에버	에티오피아에 흐르는 열정의 향해 - 에티오피아 '아와사 대학병원 의료기기 현지 교육'
26	열정 36.5°C	더 건강한 미래, 더 큰 성장을 향한 공감과 소통으로 - 전 국민 건강보험 시행 30주년 기념 UHC 국제포럼
30	KOFIH WAY	아프리카의 밝은 내일을 채색하는 더 큰 도약의 시작 - KOFIH에 드리는 제안
32	아프리카 미식로드	처음 만나는 맛있는 아프리카! - 해외 사무소에서 추천하는 아프리카 별미
34	KOFIH NEWS	함께 꿈꾸고 뜨겁게 달리는 2019 KOFIH - KOFIH의 주요 동향과 이슈
40	독자의 소리	함께 만드는 KOFIH Letter 독자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립니다



Cover story

**아프리카의 모든 엄마와 아이에게
웃음 넘치는 건강한 내일을 선사하겠습니다.**

의료 시설이 턱없이 부족한 탄자니아의 엄마와
아이가 더는 아프지 않도록, 건강한 웃음과
더 나은 내일의 믿음을 선물하고 싶습니다.
이들의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
엄마와 아이의 미소가 더 환해질 수 있도록
아프리카에 희망을 쌓아 올리겠습니다.
다 같이 누리는 따뜻한 세상을 만들어가는 길목에
KOFIH가 있습니다.



개발도상국, 북한, 재외 동포 및 외국인 근로자 등에게 높은 전문성이 요구되는 보건의료지원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이며, 이를 통하여 국제협력 증진과 인도주의 실현에 기여하고자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에 의거 2004년에 설립된 정부출연기관으로 보건복지부 산하 기타공공기관입니다.

(단위: 백만 원)



모자보건
지역보건의료체계 강화사업



응급의료체계
강화사업



건강보험 정책
컨설팅 사업



의료기기 관리운영체계
구축사업



결핵 등 감염병
관리사업



민관협력사업



병원운영
컨설팅 사업





2019 KOFIH PROJECT MAP

Since its establishment in 2006, the Korea Foundation for International Healthcare (KOFIH) has implemented various projects dedicated to the betterment of health and medical systems and bolster capacities for the people in partner countries.

(Unit: KRW million)

아프리카 지역과의 지속적인 협력 관계 형성에 힘쓰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KOFIH Letter 독자 여러분,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이사장 추무진입니다.

계절이 흘러 녹음이 짙어가는 8월, 국민과 함께 글로벌 보건의로 파트너로서 오직 한 길을 달려 온 재단이 창립 13주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비록 길지 않은 기간이었으나, 여러분들께서 보내주신 성원과 격려 덕분에 재단은 개발도상국가, 북한, 재외동포, 외국인 근로자 지원사업, 이종욱 펠로우십 프로그램, 해외재난 긴급구호, 이종욱 기념사업 등 다양한 성과를 이루어 낼 수 있었습니다.

특히 올해는 대한민국이 OECD 개발원조위원회(OECD-DAC)에 가입한 지 10년째 되는 해입니다. 원조 수원국이었던 우리나라가 2010년 OECD DAC 공여국으로 참여한 이후 지난 10년간 우리나라의 공여액은 12억 달러에서 23.5억 달러로 꾸준히 증가했습니다. 그중 24.7%에 해당하는 지구 반대편, 아프리카 지역에서 재단이 펼치고 있는 선한 영향력을 조명하고자 이번 KOFIH Letter는 아프리카 지역사업 특집호로 준비했습니다.

한국전쟁 당시 유엔군으로 지상군을 파병한 형제국 에티오피아, 아프리카 최초의 독립국이자 한국과 42년째 인연을 맺고 있는 가나, 세렝게티 초원의 광활함과 킬리만자로 산의 웅장함을 담은 탄자니아 등 멀고도 익숙하게 느껴지는 아프리카는 과거 식민지배와 독립, 전쟁과 독재 등 우리나라와 비슷한 역사를 공유하는 동시에, 높은 자원보유량과 경제성장률로 무한한 가능성과 기회를 가진 젊음의 땅입니다.



재단 역시 탄자니아, 에티오피아, 가나, 모잠비크 등 아프리카 내 10여 개국에 모자보건증진 및 건강보험 경험 전수, 의료기기 지원, 병원 운영관리 컨설팅, 지역보건의료체계 강화 등 다양한 보건의료 협력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중옥 펠로우십 프로그램을 통해 아프리카 내 350여 명의 보건의료 인력의 역량 강화와 네트워크 구축에 힘쓰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재단은 상생의 동반자로서 함께 나아갈 미래를 위해 아프리카 지역과의 지속적인 협력 관계를 형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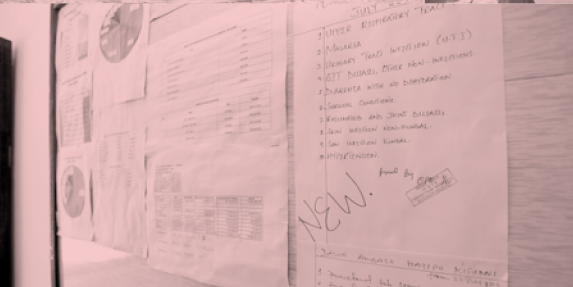
그러기 위해서는 독자 여러분의 공감대와 신뢰를 확보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곳의 생생한 목소리를 직접 귀 기울여 듣고, 희망과 행복의 현장감을 공유하고자 탄자니아 보건소 개소식 현장을 직접 취재하기도 하였습니다. 독자 여러분의 관심과 성원이 선한 영향력 행사의 원천입니다.

재단은 지난 13년간 만들어놓은 협력의 디딤돌에 모두가 건강한 삶의 버팀목을 더하고자 합니다. 2019년, 보건의료 향상에 기여하는 글로벌 파트너로서, 아프리카를 비롯한 다양한 협력국에 선한 영향력을 전파할 수 있도록 독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이사장

추무진





덥석 잡은 엄마들의 손끝에서 진심을 느꼈습니다.
해맑은 아이들의 웃음 속에 사랑을 배웠습니다.
KOFIH가 함께한 그곳에는 따뜻한 마음들로 목격해졌습니다.
그늘지고 소외된 아프리카에 사랑을 심고,
그 사랑이 건강하게 무럭무럭 자랄 수 있도록
KOFIH의 아름다운 도전은 계속됩니다.



변화와 혁신의
중심에 선
젊은 대륙,

아 프 리 카

Africa

Special Theme — 아프리카 돌아보기



글. 최연호
(한-아프리카재단 이사장)

아프리카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나 이미지는 무엇일까? 대다수의 사람들은 빈곤과 질병, 전쟁과 힘들게 살아가는 아프리카 사람들 또는 동물의 왕국에서 본 넓은 초원과 사자, 코끼리와 기린 등을 떠올린다. 동시에 아프리카를 4D, 즉 위험하고(Dangerous), 더럽고(Dirty), 어렵고(Difficult), 먼(Distant) 곳으로 생각한다. 이는 TV 등 미디어를 통해 빈곤 포르노라 불리는 구호 기관들의 모금을 위한 험벗고 굶주린 아프리카 어린이 홍보 영상의 영향이 크다. 모두 틀리다고 할 수는 없지만 전부 맞는 말도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편견을 버리고, 아프리카를 돌아볼 필요가 있다.

사진. 김도형



지구촌의 성장 엔진으로, 기회의 땅이 되어

아프리카, 우리는 어디까지 알고 있을까? 다음 네 가지의 특징으로 살펴보자.

첫째, 아프리카는 다양성의 대륙이다. 아프리카는 하나의 나라가 아닌 다양한 정치·경제와 문화를 갖고 있는 55개국이 존재하는 대륙이다. 3천이 넘는 종족과 언어 수도 2천이 넘으며, 기후대도 열대 우림, 사막, 고산, 지중해성 기후 등 13개가 넘는다. 또한, 아프리카는 지난 1974년 에티오피아 동북부 아파르 계곡에서 300만 년이 넘는 것으로 밝혀진 현존 최고의 인류 화석(Lucy)이 발견되어 우리 인류가 시작된 곳이자 인류의 고향이기도 하다.

둘째, 아프리카는 3,000만km²의 지구 면적의 20%를 차지하고 있는 거대한 대륙이다. 미국, 중국, 인도, 유럽 각국, 일본을 합한 것보다 더 크다. 12억 6천만 명의 인구에 30세 이하 비율이 70%인 아주 젊은 대륙이며, 출산율은 인구 1,000명당 36.3명(세계 평균 18.9명)으로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아프리카 국가들의 단합과 통합을 위해 1963년에 '아프리카 단결기구(OAU)'를 결성하였으며, 2002년에는 유럽연합(EU)을 모델로 OAU를 '아프리카 연합(AU)'으로 개편하여, 지역 통합을 도모하면서 국제사회에서 영향력을 키워가고 있다.



셋째, 아프리카는 천연자원이 풍부할 뿐 아니라, 각국의 정치 경제의 안정화 등 투자환경의 변화로 지구촌 마지막 성장 엔진으로 등장하고 있다. 석유, 석탄, 금, 다이아몬드, 코발트, 콜탄, 니켈 등 현대 산업에 없어서는 안 될 천연자원의 보고이며, 2000년 이후 연평균 5.5%에 달하는 경제성장을 하고 있다. 또한, 지난 7월 7일 서부 아프리카의 니제르에서 '아프리카 자유무역지대(AfCFTA)'가 공식 출범하였다. 12억 6천만 명의 인구나 GDP 3조 5천억 불의 거대 시장의 탄생이다. 아프리카 대륙은 이제 우리 기업들이 진출을 서둘러야 하는 기회의 땅이다.

넷째, 아프리카는 IT를 실생활에서 폭넓게 활용하는 혁신 기술의 상용화로 많은 성과를 내고 있다. 10년 전 시작된 케냐 통신사 사파리콤의 '엠페사(m-pesa)'는 휴대전화로 모든 금융 업무를 볼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현재 세계 10개 국에서 3천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사용 중이다. 르완다는 미국 실리콘밸리의 '집라인(zipline)'사와 공동으로 드론을 실용화하여 혈액과 의약품 등을 배송하고 있다.

또한, 지난 4월 나이지리아의 전자상거래 업체 '주미아(JUMIA)'가 아프리카 대륙의 최초 유니콘 기업으로 뉴욕증권거래소에 상장되었다. 아프리카 최고 부자인 나이지리아의 알리 단코테와 수단의 모 이브라힘 등 국제적으로 경쟁력을 갖춘 기업가들도 속속 등장하고 있다.

현재 아프리카는 급속도로 변화 발전하고 있으며 미국, 중국, 러시아, 유럽 각국, 일본, 인도 등이 서로 앞다투어 진출 경쟁을 벌이고 있다. 이런 현상을 이코노미스트는 지난 3월 표지 특집 기사에서 '신 아프리카 쟁탈전(The new scramble for Africa)'으로 표현하였다.

19세기 유럽 열강들의 아프리카 식민지 쟁탈전과 미·소 냉전시대 아프리카 대륙에서 벌어진 민주주의와 사회주의 이념 쟁탈전에 이어, 자원과 경제적 이익을 필두로 외교적 영향력을 높이려는 국가들의 아프리카 진출 경쟁이 점입가경이다. 특히, 중국의 시진핑 주석이 역점을 두어 추진하고 있는 '일대일로(BRI, Belt and Road Initiative)'의 주요 대상이 아프리카 대륙이다.

은인의 대륙을 넘어 공생의 관계로

이제 한국과 아프리카의 관계에 대해 알아보자. 아프리카는 한국에게 은인의 대륙이다. 1950년 한국전쟁 발발 시 아프리카 대륙에 독립 국가는 이집트, 에티오피아, 라이베리아와 남아프리카 공화국 등 4개 국뿐이었다. 이 중 에티오피아와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유엔군의 일원으로 참전하여 많은 희생을 내면서 대한민국 수호에 기여했다. 냉전 시대에는 유엔 등 국제무대에서 아프리카 국가들의 지지 확보를 위한 남북 대결외교로 역설적이지만 아프리카 국가들과의 관계가 비교적 활발히 전개되었으나, 냉전 종식과 더불어 거의 휴면상태가 되었다.

경제 통상관계도 아주 미약하다. 지난해 우리나라와 아프리카 대륙 전체와의 무역액은 193억 달러로 전체 무역액 약 1조1천억 달러 중 1.7%에 불과하다. 한편, 아프리카 55개국 중 54개국이 유엔 회원국으로 전체 193개 회원국의 1/4이 넘어, 올림픽 등 각종 국제 대회 유치와 국제기구 고위직 선거에서 아프리카의 지지 확보가 필수적이어서 아프리카는 국제·정치·외교적으로도 아주 중요하다. 이러한 아프리카의 잠재력과 중요성을 감안할 때 우리 정부와 기업들의 더욱 적극적인 관심이 요구된다.



아프리카에 대한 정부 차원의 관심과 외교적 노력은 2006년 노무현 대통령의 아프리카 방문 이후 ‘아프리카 개발을 위한 한국 이니셔티브’ 발표를 계기로 본격화되었다. 외교부가 주관하는 ‘한-아프리카 포럼(KOAF)’, 기재부의 ‘한-아프리카 경제협력포럼(KOAFEC)’, 산자부의 ‘한-아프리카 산업협력포럼(KOAFIC)’을 중심으로 정기적 회의 개최와 협력사업 등을 통해 아프리카 대륙과의 동반자 관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다. 또한, 지난해 6월 외교부의 4번째 산하기관으로 ‘한-아프리카 재단’을 출범시켜 아프리카 업무를 강화해 나가고 있다.

아프리카와의 동반자 관계증진을 위한 민관 협력의 플랫폼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재단은 한-아프리카 청년 교류, 차세대 아프리카 전문가 양성, 아프리카 창업대회 등 기업 지원 활동과 아프리카 각국에 대한 조사 연구 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다. 최근 정부와 기업들의 아프리카 대륙에 대한 관심이 달라지고 있어 고무적이다. 지난해 이낙연 국무총리가 두 차례, 올해 7월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아프리카를 방문하고, KOICA의 아프리카 사업 규모도 늘어나고 있다.

기업의 아프리카 진출 노력도 눈에 띄고 있다. 한편, 그간 아프리카에 대한 정부와 기업들의 미온적인 관심과 달리, 민간의 종교계와 구호단체들은 오래전부터 아프리카에서 풀뿌리를 대상으로 많은 활동을 해오고 있다. KOFIH도 탄자니아, 세네갈, 모잠비크 등 10여 개국에서 기초 보건 의료체계, 감염병 관리 역량 강화, 응급의료체계 강화 등 현지인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분야에서 많은 성과를 도출하고 있다. 향후 아프리카의 전 국가로 확대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다양성의 이해와 존중하는 마음으로 함께 가다

한국과 아프리카는 식민지배와 가난, 전쟁과 독재 등 유사한 과거를 공유하고 있다. 아프리카 사람들은 자신들과 비슷한 처지에 있던 한국이 원조를 받는 나라에서 주는 나라가 된 것을 부러워하며 한국의 발전 경험을 배우고 싶어 한다. 그래서인지 아프리카 어디를 가도 한국인이라고 하면 환한 웃음으로 맞아준다.

아프리카 대륙은 무한한 가능성과 함께 극복해야 할 도전 요인 또한 적지 않다. 그러나 아프리카가 우리에게 기회의 땅임은 자명하다. 아프리카에서 우리 국민과 기업들이 자리를 잡기 위해서는 우선 아프리카에 대한 편견과 선입관을 버리고, 올바르게 알고자 하는 자세에서 시작해야 한다. 아프리카의 다양성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마음의 바탕에서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는 아프리카 속담처럼 긴 호흡으로 멀리 내다보면서 아프리카와 함께 가야 한다.





희망의 씨앗을 심다

KOFIH와 함께 빛나는 아프리카 일곱 개의 별

광활한 자연을 품고 독특한 문화를 꽃피운 대륙이지만 아프리카에는 분쟁, 가난, 질병, 기후 변화의 영향으로 여전히 많은 이들이 고통을 겪고 있다. 이에 KOFIH는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아프리카인들을 위해 ODA(공적개발원조) 사업으로 밀착 지원 활동을 펼친다. 질병 없는 건강한 지구촌을 향한 KOFIH의 철학과 따뜻한 마음으로 소외된 이들을 보듬으려는 임직원들의 의지가 만났으니 아프리카에는 매일 희망을 품은 씨앗이 싹튼다. KOFIH와 희망의 기적을 함께 일궈가는 아프리카 일곱 개의 나라를 만나보자.

정리. 편집실



황금의 나라 가나

가나는 노예 무역의 중심지였다. 당시 유럽인들이 지었던 성채를 지금은 박물관, 학교, 호텔로 사용하고 있다. '황금 왕국'이라고 불릴 정도로 금 매장량이 풍부하다. 아프리카에서 교육 수준이 가장 높은 나라 중 하나이다.

● 가나에서 KOFIH는?

모자보건증진 및 건강보험제도 협력사업

아크라와 볼타 지역의 모자보건증진 및 건강보험제도 협력사업을 통한 가나 보건 의료 중기개발계획(2018년~2021년) 이행을 지원하여 보건의료 서비스 접근성을 강화했다. 모자보건증진 2차 사업을 통해 보건 분야 정부 관리능력 향상, 보건시설 환경 및 서비스 개선, 의료 인력 교육, 지역주민 참여 확대하여 가나 모자보건 서비스 접근성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나일강이 시작되는 남수단공화국

본래 수단과 남수단은 한 나라였는데 이슬람계인 북수단과 비이슬람계인 남수단이 오랜 세월 분쟁을 거쳐 마침내 2011년 남수단으로 분리됐다. 원유, 철 등의 지하자원이 풍부하여 무한한 성장잠재력을 지닌 나라이다.

● 남수단공화국에서 KOFIH는?

모자보건증진 및 결핵관리사업

주바, 아마디 주 루이 지역에서 조산사 및 결핵요원 양성 지원을 통한 정부 보건 개발계획(2012~2016년)과 결핵관리 프로그램(2015년~2019년) 전략 이행을 지원한다.



원시 자연이 살아있는 모잠비크

남아프리카공화국과 함께 코끼리와 코뿔소의 세계 최대 서식지다. 1992년 내전이 종식되어 시장경제로 바뀌었고, 풍부한 에너지 자원으로 세계적인 기회의 땅으로 거듭나고 있다.

● 모잠비크에서 KOFIH는?

켈리만중양병원 운영관리 컨설팅사업

잠베지아주 켈리만시 지역에서는 EDCF(대외경제협력기금)로 건립한 켈리만중양병원에 대한 병원운영 컨설팅과 인력교육 제공 등을 통해 원조 효과성 및 지속가능성 제고에 나선다.



아프리카의 스위스 에티오피아

국토 전체 해발 고도가 1,000m 이상인 고원 지대라 아프리카답지 않게 건조하고 서늘한 편이다. '커피의 땅'이라고 불릴 정도로 커피 생산량이 풍부하고, 나이지리아 다음으로 아프리카에서 인구가 많은 나라이다.

● 에티오피아에서 KOFIH는?

모자보건증진 및 건강보험제도 협력사업

아디스아바바, 짐마 지역에서 2014년부터 2020년까지 에티오피아 보건부문 개발계획 이행을 통한 보건 거버넌스 강화, 전달체계 구축, 의료 인력 강화 및 건강보험제도 협력사업에 나서고 있다. 이로써 모자보건 서비스 접근성과 건강보험체계가 강화되는 성과를 얻었다.

의료기기 관리운영체계 강화사업

아디스아바바를 비롯한 주 거점 공공 의료기관(10개)에서 의료기기 관리운영체계 강화를 통해 보건의료 서비스 질을 제고하여 주민 삶의 질 향상 및 협력대상국과의 협력관계 증진을 꾀한다.



아프리카 교통의 관문 케냐

해안가에 위치한 케냐는 고대부터 무역업이 활발했고, 산업과 국제환경의 중심지이다. 수도 나이로비는 아프리카에서 가장 활발한 대도시이다. 케냐는 마라톤 세계 최강국이고, 커피 산지로도 유명하다.

● 케냐에서 KOFIH는?

보건의료 관리정보시스템 강화사업

나이로비 지역에서 케냐 보건분야 전략 및 투자계획 이행을 지원한다. 이로써 의료물품 유통관리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과 건강보험 운영관리체계를 강화했다. 국제개발협력 지속가능목표(건강한 삶 및 복지증진, 모성 사망률 감소 및 비전염성 질환으로 인한 조기사망률 감소, 보편적 건강보장 달성)에 기여하고 있다.



인류 탄생이 시작된 탄자니아

본래 탕가니카와 잔지바르 두 나라를 1964년 탄자니아로 국명을 바꾸고 합쳤다. 아프리카 대륙에서 가장 높은 킬리만자로산이 있고, 기린과 사자, 얼룩말, 표범 같은 야생 동물의 천국이다. 커피 생산지로도 유명하다.

● 탄자니아에서 KOFIH는?

모자보건중심 보건의료체계 강화사업

프와니주 지역에서 프와니주 보건의료체계 강화를 통한 모성사망비 및 유아 사망률 감소에 힘을 쏟고 있다.

무힘빌리의과대학병원 운영관리 컨설팅사업

다레살람주 음롱간질라 지역에서는 한국수출입은행 대외경제협력 기금을 지원하고, 무힘빌리의과대학병원 건립사업에 대한 병원운영 컨설팅, 인력교육 제공 등을 통한 원조 효과성 및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데 주력한다.



야생동물의 천국 우간다

적도에 위치한 우간다는 숲과 호수와 초원이 어우러져 자연환경이 아름답다. 하지만 독재와 오랜 내전으로 어려움을 겪었다. 아프리카 최대의 호수이자 나일강의 시작점이 되는 빅토리아 호수가 유명하다.

● 우간다에서 KOFIH는?

응급의료중심 지역보건의료체계 강화사업 & 국가 결핵관리 역량강화사업

캄팔라 지역에서 지역 보건교육과 응급의료 역량강화 등을 통한 우간다 보건분야 발전계획(2015년~2020년) 이행을 지원한다. 이로써 지역 전원체계 강화를 통한 응급 의료 서비스 접근성이 개선되고 있다. 또한 우간다 국립결핵 실험실 지원을 통한 우간다 보건부의 국가보건전략 중 국가 결핵 전략계획 이행을 지원한다.

탄자니아에 흘뿌린

탄자니아 모자보건증진 사업 '보건소 개소식 현장'

희망, 생명의 삼을 뜨다

모두가 건강한 세상을 꿈꾸던 이종욱 사무총장의 신념을 전하겠다는 다짐을 품고, KOFIH는 2009년 탄자니아로 향했다. 묵묵히 보건의료사업의 씨앗을 뿌리고 조금씩 뿌리를 키워나갔다. 그로부터 어느덧 10년이 흘렀다. 모두의 염원대로 탄자니아 보건의료체계는 그때보다 조금 더 단단해졌고, 아이들의 꿈은 싹싹 자라고 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더는 탄자니아의 소중한 생명이 꺼지지 않도록, KOFIH는 국경을 초월한 사랑을 열렬히 실천 중이다.

글. 이영경 사진. 김도형

Special Theme — KOFIH 특파원



상. 키비티 보건소에서 산모와 대화 중인 KOFIH 현지 직원들
하. KOFIH 로고가 선명한 모자병동의 침구

새롭게 단장한 음브웨라 보건소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의료진



Tanzania



보건소 개소식 행사에 신난 모호로 지역 아이들의 점프!

더불어 가꾸는 삶과 꿈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아프리카 속담이 있다. 아이를 건강하게 잘 키우기 위해서는 부모뿐만 아니라 주변 이웃들도 관심과 애정으로 함께 보살피 줘야 한다는 얘기다. 하지만 정작 아프리카 현실은 녹록지 않은 터. 그중 탄자니아는 전 세계 출산율 12위지만, 모성 사망(산모가 임신 혹은 분만 중 사망하는 경우)률이 10위 안에 들 정도로 높은 만큼, 보건의료 개선이 시급한 지역으로 손꼽힌다.

이에 KOFIH가 탄자니아 프와니주에 협력 사업을 시작한 지 올해로 10년 차. 아픔으로 고통받던 프와니주는 지금 얼마나 달라졌을까? 엄마와 아이의 생명을 살리고자 시작된 KOFIH의 모자보건증진 사업은 현재 프와니주 9개 지역을 넘어 인근 마을 여러 곳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KOFIH와 프와니주 보건국의 협력으로 보건소가 지속적으로 개보수되면서 이는 생명을 살리는 상징이 되었다. 미래의 희망을 서서히 쌓아 올리는 프와니주 3개 지역의 ‘보건소 모자병동 개소식’ 현장을 축하하고자 지난 8월 초, KOFIH 탄자니아 사무소 우원규 소장과 취재팀이 동행했다. 프와니주에서 따뜻한 마음과 애뜻한 뜻으로 소외된 이웃에게 진심을 전한 아름다운 발자취를 확인할 수 있었다.

한 걸음 더 가까이, 잠보(Jambo, 안녕) 탄자니아!

탄자니아를 설명하는 키워드는 많다. 야생동물의 천국 세렝게티, 킬리만자로, 잔지바르, 커피 생산국 등. 개중에는 영국, 독일 식민지의 아픈 역사를 지닌 키워드도 있다. 아프리카 대륙 동남부 인도양 연안에 위치한 탄자니아의 크기는 한반도의 4.3배에 달한다. 스와힐리어와 영어를 사용하며 총인구 6천만 명, 130여 개의 다양한 종족으로 구성되어 있다. 내란과 테러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 ‘젊은 대륙’으로 성장하면서 동아프리카의 관문으로 자리했다.

폭염이 절정에 이른 8월의 한국 날씨와는 달리, 탄자니아에는 쾌적함이 느껴졌다. 기온은 서울과 크게 다르지 않았지만, 습도가 낮은 데다 선선한 바람까지 불어와 숨통을 틔워주었다. KOFIH 탄자니아 사무소가 위치한 다르에스살람(Dar es Salaam)은 탄자니아의 옛 수도로, 가장 발달한 도시답게 활기 넘치고 복잡한 풍경을 연출했다. 봄비는 차량에 막혀 정차할라 치면 어김없이 상인들이 몰려와 각종 물건을 파느라 분주하다.

탄자니아 사무소는 우원규 소장을 비롯한 현지 직원 2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국경을 뛰어넘는 소통과 화합으로 ‘효과적인 보건의료 사업’이라는 동일한 목표를 향해 함께 머리를 맞대고 움직인다. 특히 현지 직원들은 KOFIH가 추구하는 비전과 가치를 올곧게 새겨, 오래도록 함께 성장할 인재로 거듭나는 중이다. 취재팀이 첫 번째로 방문할 프와니주 키비티DC의 ‘키비티(Kibiti) 보건소’로 가기 위한 여정은 이곳 다르에스살람에서 시작되었다. 번잡한 도시를 빠져나와 남쪽으로 내달리는 국도에서 마주한 아프리카는 시시각각 다양한 얼굴을 선사하며 대자연의 위대함에 깊이 매료되게 했다.



키비티 보건소 개소식 행사에 참가한 지역주민들



취재팀을 향해 활짝 웃는 아이들

키비티 지역에 생명을 불어넣다

다르에스살람을 떠난 지 약 3시간 남짓, 다채로운 시골 모습과 대자연의 신비로운 풍광에 지루할 틈 없이 달려 도착한 키비티 지역은 상인들과 주민들로 뒤섞여 시골 마을임에도 활기가 생생했다.

모자병동 개소식에 함께할 조태익 주탄자니아 대사와 반갑게 조우한 후, 지역 행정사무국을 찾았다. 대한민국과 탄자니아의 개발협력 방안을 더욱 강화하기로 약속하며, 한창 건립 중인 병원 현장을 찾아 격려하는 등 탄자니아 지역보건의료 분야의 밝은 내일을 만드는 데 함께 힘을 모으기로 했다. 이윽고 도착한 곳은, 커다란 아름드리 망고나무가 시원하게 자리한 넓은 마당에 흥겨운 아프리카 음악이 마치 축제 현장처럼 사람들을 반기는 키비티 보건소다. 개소식 시간이 다가올수록 주민들이 삼삼오오 몰려와 행사 분위기가 달아오른 가운데, 보건국 닥터 마틴(Dr. Martin)의 감사 인사말을 서막으로 관계자들의 축하가 이어졌다.

조태익 주탄자니아 대사와 KOFIH 직원들이 키비티 지역 행정사무국을 찾아 대화하고 있다.



조태익 대사는 “KOFIH만의 특화된 전문성을 바탕으로 이종옥 펠로우십을 통해 현지 보건의료 관계자들의 높은 신뢰와 평가를 받고 있다”면서 “대한민국과 KOFIH의 협력으로 탄자니아 모자보건 역량이 크게 향상 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표했다.

참가자들의 연설이 끝날 때마다 주민들 사이에서는 마사이족들이 혀를 둥글게 말며 내는 기쁨의 표현인 ‘오로로로’ 소리가 흥겹게 울려 퍼졌다. KOFIH는 보건소에 산과 및 조산아실 시설과 장비를 구축하고, 병동을 잇는 통로를 건설했다. 또한 살균소독기 및 의약품과 의약 소모품 등을 후원함으로써 산모들이 안심하고 건강한 출산을 할 수 있게 돕고 있다. KOFIH 로고 스티커가 부착된 장비들이 든든한 자태를 뽐내는 가운데, KOFIH 로고가 아로새겨진 새하얀 침구로 정돈된 입원 병동에서 산후 조리 중인 산모들을 만났다. 낯선 이들을 경계하는 듯하면서도 한국인임을 상기하자 이내 미소로 화답해주는 마음이 고맙기만 하다. 불과 24시간 전, 첫 출산으로 딸을 얻었다는 스물 다섯의 산모는 스와힐리어로 ‘아산테(Asante, 감사합니다)’를 반복하며 목소리에 힘을 실었다. 그는 “KOFIH의 도움으로 개소된 모자병동으로 산모들이 충분한 의료 서비스와 산후 조리에 힘쓸 수 있게 되어 가장 만족한다”고 덧붙였다. 꼬물꼬물한 손으로 엄마 젖을 움켜쥐고 품에 안긴 모자병동의 여러 아이들에서는 삶의 희망과 기적이 공존했다.

부디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손을 잡고 온기를 나눴다. 닥터 에드윈(Dr. Edwin Mjuni)은 “KOFIH의 지원 덕에 키비티 지역에 보건의료 분야 인프라 구축, 보건 인력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트레이닝, 의료기기 예방 교육 등이 이뤄졌다”고 전하고, “산모들의 보건소 내 안전한 출산이 증가하여 산모 및 영아사망률이 감소하고, 전반적으로 보건의료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이 크게 증대되었다”고 밝혔다.

들 넘고, 물 건너 마주한 음브웨라 보건소

다음 날 동이 터오자, 키비티에서 1시간가량 떨어진 이키위리(Ikwiri) 지역에서 음브웨라(Mbwera) 보건소 모자병동 개소식 참여에의 여정이 펼쳐졌다. 뽀얀 흙먼지 바람을 일으키는 비포장 된 시골길에 놀이 기구를 탄 것마냥 엉덩방아를 찧으면서 좌우로 춤추듯 온몸을 내맡긴 지 2시간. 더는 차량 이동이 불가능한 곳에 내렸더니, 수심 12m의 강에 작은 나룻배들이 정박해 있다. 강 건너 음브웨라 지역을 연결할 다리가 없는 상황이라 유일한 교통수단인 셈이다. 행여 물에 빠질세라, 조심스레 균형 잡고 강을 건넜더니 이번엔 오토바이이다. 음브웨라 열혈 청년들이 달뜬 표정을 머금고 드라이버로 줄지어 있다.

헬멧 하나 없이 드라이버에 의존하며 한 호흡으로 달리고 또 달렸다. 오토바이가 여는 길 위에는 거리와 공간을 가늠할 수 없는 광대한 대자연의 파노라마가 펼쳐졌다. 아무도 살지 않을 듯한 대자연의 품에는 원주민들의 소박한 삶이 끝없이 지속되고 있었다.

우리나라 1950~60년대를 연상케 하는 시골 마을은 흡사 사람조차 자연의 일부처럼 날 것 그대로의 모습이 간직되어 있다. 오토바이라는 신문물이 삶의 터전을 오염시킬 것만 같은 미안함이 들 정도로.

다양하고 역동적인 교통수단을 넘나들며 어렵게 도착한 음브웨라 보건소. 새하얀 건물 벽이 눈에 띄는 보건소에 새하얀 희망이 피어나고 있었다. 시종일관 진지한 분위기로 진행된 개소식은 음브웨라 지역 주민이 마련한 닭 선물로 한바탕 웃음을 쏟으며 마무리되었다.

닭은 탄자니아에서 귀한 사람에게 주는 의미로, KOFIH 측에 감사의 인사로 보답한 셈이다. 놀란 닭의 활개로 큰 웃음을 머금은 주민들은 기쁜 마음으로 개소식을 축하했다. 신축 공사로 꽤 분주한 보건소에는 새롭게 건립된 수술실, 회복실이 곧 채워질 장비를 기다리고 있었다. 차곡차곡 벽돌을 쌓아가는 건물은 더 많은 이들을 따뜻하게 보듬고, 더 많은 생명을 맞이할 준비에 한창이다. 보건소 책임자로 환자들을 치료하며 보건 서비스를 제공하는 닥터 요하나(Dr. yohana)는 “모자 병동이 깨끗하게 건립되어 산모들의 산전 관리가 용이해져서 매우 큰 힘이 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들 모두가 편리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어 든든하다”고 전했다.

무엇보다 외딴 오지 마을이었기에 척박한 땅에 건립된 보건소와 모자병동에 마음이 한결 가벼워진 데다, 산모들의 편안한 얼굴이 더 큰 행복이 되어주었다.

돌아가는 길 역시 험난했지만, 음브웨라 보건소를 관리하는 키비티 당국에서 다리 건립을 추진 중이라 하니 그저 반가운 마음이다. 이처럼 소외된 지역사회에 실질적으로 큰 도움을 주고 있는 KOFIH의 활약에 자부심이 샘솟았다.

모든 일에는 궁합이 중요한데, KOFIH와 프와니주 보건국은 원활한 소통으로 훌륭한 조합을 이뤄내고 있었다. 수년간 맞춰온 합은 여러 번의 기적을 함께 일구면서 결국 탄자니아 주민에게 축복이 되어주었다.

- ① 음브웨라 보건소 개소식 행사 후, 지역주민들과 함께한 기념사진 ② 음브웨라 보건소의 산모와 영아가 KOFIH의 지원으로 개보수된 모자병동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다.
③ 음브웨라 지역을 연결하는 나룻배를 타고 강을 건너는 KOFIH 직원들





비눗방울 놀이에 즐거워하는 음브웨라 지역 아이들과 엄마들

Hope

하나 되어 외치는 ‘모호로 사피(모호로 좋아!)’

취재팀이 마지막으로 찾은 보건소는 루피지 DC의 ‘모호로(Mohoro) 보건소’다. 오후 2시에 열린 개소식 역시 모호로 지역 주민들에겐 큰 잔치였다. 개소식 말미에는 ‘모호로 사피(Safi, 좋아)’를 외치면서 다 함께 기쁨을 나눴다. KOFIH라는 이름으로 하나 된 탄자니아인들의 마음에 발걸음 이 한층 가벼워진다. 모호로 보건소에는 산부인과 병동 확장과 수술실 개보수가 말끔히 진행되어 여유롭게 산모들을 수용하게 됐다. 개소식에 참여한 지역주민은 “집이 근처인데 보건소가 있어서 든든하고 좋다. 두 살배기 아들내미가 아플 때 당장 치료받을 수 있어서 무척

안심된다”며 환하게 웃었다. 산모뿐만 아니라, 말라리아에 걸려 생기 없던 아이도 보건소에서 치료를 받아 점차 활기를 되찾고 있다는 말에 한결 마음이 놓였다. 아프리카에는 ‘사람을 모질게 학대하는 병’이라는 뜻의 학질인 말라리아로 인한 사망자가 여전히 많다. 주로 5세 이하의 어린이나 노인들이 말라리아에 취약한 편이다. 따라서 오지 마을에 들어선 보건소는 의료 접근성 개선을 통해 주민들에겐 삶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고 있었다.

지역민들이 이구동성으로 고마움을 표하는 현장에는 변화를 향한 프와니주의 의지와 KOFIH의 열정이 맞물려 아름다운 나비효과를 끊임없이 불러일으켰다.

한편, 지난 7월 말에는 성과평가 점검을 위한 ‘2019년 프와니주 모자 보건중심 보건의료체계 강화사업 워크숍’이 열렸다. KOFIH 사업의 강점을 다시금 조명해보고, 사업결과 평가와 지역별 수요를 반영한 공동 계획 수립을 위한 자리가 마련됐다. 프와니 주지사는 “재단 사업의 추진 성과를 통해 프와니주에 양질의 모자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환경이 개선되어 기쁘다”며 깊은 감사를 표했다.

이처럼 프와니주는 점차 보건의료 시스템의 틀을 다져가는 중이며 주민들은 이제 마음 놓고 생명과 꿈을 키울 수 있게 되었다. 아프리카 지역사회를 위한 관심과 애정은 국경을 넘어 더 건강한 마을을 만드는 일등 공신이 되어주었다. 우원규 소장은 “프와니주의 보건의료 성장을 곁에서 지켜보며 그들만큼 행복하고 자긍심도 높아졌다”고 덧붙였다.

개보수된 모호로 보건소의 모자병동 내부





상. 모호로 보건소에서 할머니가 손녀에게 분유 수유를 하고 있다.
하. 7월 말 개최된 '2019년 프와니주 모자보건중심 보건의료체계 강화사업 워크숍' 기념사진

KOFIH, 그늘진 모든 곳을 보듬다

‘우리가 함께 있기에 내가 있다’라는 의미의 ‘우분투(Ubuntu)’라는 아프리카 말처럼, 어느 한쪽만 행복한 것이 아닌 다 같이 행복한 사회를 위해 KOFIH와 프와니주 보건국은 조화를 이뤄내며 탄자니아 보건의료의 선순환을 만들어가고 있다. 벽을 마주했지만 포기하지 않고, 뚫고 나갈 문을 만든다는 각오로 한발 한발 계단을 올라왔다. 이종욱 사무총장의 마음도 우분투와 흡사하지 않았을까?

지역사회 보건의료분야의 변화와 혁신이 필요한 시점에서 프와니주는 절박한 마음으로 모자보건증진 사업에 집중해 서로 소통하고, 배려하고, 헌신하면서 KOFIH와 함께 발전했다. 그 절박함이 지금의 건강한 프와니주를 완성해가고 있다.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KOFIH와 프와니주는 더 밝은 미래를 위해 더 위대한 일을 계속할 것이다. 오늘보다 한결 나은 탄자니아의 내일을 응원하며, 그들의 삶이 ‘하쿠나마타타(문제 없어)’처럼 언제나 평온하기를.

INTERVIEW

도전으로 성장을, 소통으로 사랑을

KOFIH 탄자니아 사무소 소장 | 우원규

지난 2017년 3월에 파견되어 현지 직원들과 함께 프와니주 6개 지역의 보건소 관리에 힘쓰고 있습니다. 우기 때는 현장 접근이 불가능해 건기 위주로 현장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는데, 한 달 반마다 현장 관계자들을 만나 함께 호흡하면서 사업 강화에 주력합니다. 예전보다 산모와 지역 주민들이 여유롭게 시설을 이용하는 등 눈에 띄는 성과를 볼 때마다 가슴 뿌듯함을 느낍니다. 나라별 업무 시스템이 달라 간혹 소통에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지만, 중간 조율에 힘써 원활한 소통을 꾀하고 체계적인 보건의료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책임을 다하고 있습니다. 향후 행정수도인 ‘도도마’에서 모자보건증진 사업을 진행하는 등 탄자니아 전역의 의료체계 강화를 위한 뜻을 품고 있습니다.

KOFIH를 대표하는 한 사람으로서, 탄자니아의 많은 이들을 도울 수 있는 점이 제겐 행운이자 기쁨인 만큼, 더 큰 사랑을 전하고 더욱 효율적인 관리로 보건의료 사업 안정화를 위해 힘차게 플레이하겠습니다.

가나 '모자보건증진 사업' & '건강보험제도 협력사업' 지역민의 마음을 꿰뚫어 건강하게 빛나다

스스로 혼자 빛나는 별은 없다. 서로에게 빛을 받아서 반사하는 것처럼, 좀 더 건강하고 따뜻한 세상을 밝히고자 KOFIH는 가나와 손을 맞잡았다. 가나 지역의 내일을 환히 비추기 위해 지역민의 마음을 꿰뚫고 뜻을 하나로 모아 정성스레 한 발 한 발 나아간다. 더불어 빛나는 별이 되고자 하는 마음으로.

글: 이영경



Special Theme — 함께 그리고 멀리



보건의료 성장을 향한 두 개의 플랫폼

가나는 보건부 산하에 여러 수행기관을 두어 튼튼한 보건 체계를 갖추고 있다. 따라서 분권화된 거버넌스 구조를 통해 주요 보건 문제를 신속히 해결하는 편이다. 그럼에도 여전히 가나는 보건 의료 자금과 체계 강화의 필요성이 요구된다. 더 많은 가나인이 걱정 없이 출산하고, 아이를 키우고, 언제든 편리하게 의료 서비스를 받게 하는 것. 이를 위해 KOFIH가 열정의 손을 내민 지 5년. 가나와 KOFIH의 협력사업은 꽤 순탄한 길을 걷고 있다. KOFIH는 지난 2013년부터 2018년까지 '호호에, 아파자토 사우스, 크라이 웨스트, 크라치 추무루' 등 가나 볼타주 4개 지역에서 모자 보건증진을 통한 개발 지원을 활발히 전개해왔다. 가나 보건부와 가나 보건청(GHS)과 함께였다. KOFIH의 사업은 '다양한 자금 지원'이라는 특징도 훌륭하지만, 무엇보다 '현지의 전문성'과 '상향식 방안을 활용'하는 것이 핵심이었다. 이는 혁신을 넘어 역량 강화, 책임감 있는 사업 이행으로도 이어져 결국 가나 지역 보건의료 서비스를 한층 강화하는 토대가 되어주었다.

KOFIH는 중앙정부와 주 정부 간의 관계 조율 역할을 수행하며 소외된 지역에 관심을 돌리는 한편, 궁극적으로는 가나 지역의 보편적 건강보장 실현을 위해 가나 건강보험청(NHIA)과 함께 건강보험제도 협력사업을 추진하는 데 매달렸다. '모자보건증진 사업'과 '건강보험제도 협력 사업'이라는 두 개의 플랫폼과 함께 지역에 밀착된 활동을 펼치며 보건의료 성장의 가치를 드높이는 셈이다.

걱정과 고통은 Off, 역량 강화는 On Air

2013년, 두 개의 사업 틀을 형성한 가나 사무소는 바빠 움직이기 시작했다. 간간하게 체크하고

취합한 사전조사를 바탕으로 워크숍과 정책 컨설팅이 치열하게 이뤄졌다. 이제는 현장 지원이다. KOFIH는 가나의 모자보건 증진을 위해 서둘렀다. 조산사 양성학교 지자체 지원의 장비 개선과 보건의로 인력 확보 등 역량 강화의 틀을 마련했다. 보건소의 분만실 개보수는 물론이고, 보건종사자를 위한 훈련 지원에도 거침없었다. KOFIH가 해마다 흘린 소중한 땀방울은 커커이 쌓여 값진 성과를 불러왔다. 해가 거듭될수록 모자보건 서비스 이용 증가율은 꾸준히 늘어 목표치를 초과 달성하는 보람을 맛본 것이다. 가나 건강보험청을 대상으로 한 건강보험제도 협력사업을 위해 실무자 역량 강화에 힘쓰고, 실효성 있는 정책 협력을 위해 프로그램 지원에도 힘을 보탰다.



Ghana

무엇보다 건강보험 가입자 확대에 정성을 쏟았다. 사업 시스템을 정교하게 가다듬고, 가입자 정제기를 극복하고자 기초조사 공동연구에도 심혈을 기울였다. 그러자 건강보험 시범 사업지의 수가 증가하는 등 사업 수행의 성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다. 물론 여전히 수많은 가나인의 보편적 건강 보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 그러나 건강보험의 개념조차 정립되어 있지 않던 곳에, 지역민들에게 보낸 관심과 응원은 해마다 큰 힘으로 작용했다. KOFIH의 지원으로 보건의로 지표 개선에도 큰 역할을 한 것은 물론, 볼타 지역 한 곳은 3년 연속 최우수 지역 보건국으로 선정되는 영광을 얻었다. KOFIH는 주민들의 건강한 삶이 정착될 수 있게 물심 양면 도와 차곡차곡 성장을 쌓아나가는 중이다. 앞으로도 궁극의 목표는 하나다. 더 건강한 내일을 만드는 것. 어려웠지만 할 만했고, 힘들었지만 뿌듯했던 지난날. 꿈쩍 않을 것 같던 산을 마침내 움직였고, 그 속에서 수많은 가나인의 응원을 온몸으로 느끼며 KOFIH는 조금 더 단단해졌다. KOFIH는 자긍심을 얻고, 볼타 지역민들은 건강하게 살아갈 기쁨을 얻었다.

같이 만드는 옴은 미래

지구촌 반대편에 있는 서로 다른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로 연결돼 'KOFIH'라는 이름으로 이제 우리가 됐다. 연결될수록 우리는 강해지고 행복해진다. 서로를 배려하고 감싸 안아 같이 나아가는 것. 어쩌면 이 모습이 우리가 그리는, 이종욱 사무총장이 염원하던 '옴은 미래'의 모습이 아닐까. 서로 교감하며 긍정적인 변화와 아름다운 공존을 만들어가기에 가나인들의 보편적 건강보장이 굳건하게 자리할 일상은 그리 멀어 보이지 않는다. 견고한 사업구조를 바탕으로, 가나 대륙 곳곳에 건강한 삶을 선사하기 위해 치열한 그곳의 여정은 오늘도 찬란하게 빛난다.



에티오피아 ‘아와사 대학병원 의료기기 현지 교육’

에티오피아에 흐르는 열정의 항해

이종욱 펠로우십 프로그램을 통해 배움과 나눔의 가치를 마주한 연수생들이 꿈을 전하고자 세계로 흩어졌다. KOFIH의 땀과 노력에 연수생들의 열정이 더해졌으니 이종욱 사무총장의 철학은 세계 곳곳에 더욱 강력히 뿌리내리리라. 현지 교육에 열정적인 역할을 하며 에티오피아 보건의료 분야의 성장 가도에 동참하고 있는 연수생과 교육 수강생의 항해를 소개한다.

글. 이영경



Special Theme — 리멤버 포에버

강한 열정은 현신이 되고

에티오피아 남부지역 아와사에 위치한 ‘아와사 대학병원’. 바깥 날씨처럼 뜨거운 온기가 강의실을 후끈 달아오르게 했다. 강의실에는 이종욱 펠로우십 프로그램 초청 연수생으로 ‘의공기사 중급과정’을 이수한 멜레세 분쿨라(Melese Bunkula) 강사의 의공기사 교육 강의가 한창이었다. 배운 것을 전하려는 자, 새롭게 배우려는 자 모두 열의가 빛난 교육 현장에는 아와사 지역 내 의공기사 및 의료기기 사용자 역량 강화와 스킬 향상을 위한 수업이 밀도 있게 진행됐다.

아와사 대학병원에서는 의사, 간호사 등 의료기기 사용자 및 의료기기 기술 인력을 대상으로 지난 8월부터 시작된 ‘의료기기 현지 교육’이 오는 9월 말까지 세 차례에 걸쳐 총 123명에게 이루어질 계획이다.

‘이종욱 펠로우십 한국 초청연수생 의공기사 연수과정’을 통해 양성된 현지 핵심 기술 인력 15명이 직접 교육 강사로 활약하며 에티오피아 지역 내 의공기사 및 의료기기 사용자 역량을 한층 끌어올리기 위한 선순환의 꽃을 피워냈다. 교육 강사들은 그간 쌓은 노하우와 열정을 아낌없이 멘토링하여 현지 교육생들의 전문성을 이끌고 보건 분야에 대한 영향력을 점차 키워나간다. ‘의공기사 교육’은 인공호흡기를 비롯해 마취·고압멸균기·화학 의료기기 등을, ‘의료기기 사용자 교육’은 의료장비

관리체계 소개부터 환자 모니터링 기술 등으로 이론과 실습 수업이 병행돼 현지 교육생들의 경쟁력을 끌어올리고 있다. 단순히 텍스트를 통해 배우는 교육이 아닌, 직접 해보고 배우는 실습형 수업으로 교육생들의 업무 이해도를 높일 뿐 아니라, 몰입도를 더하고 현장감을 높였다.

또한 교육생들의 역량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될 수 있게 더욱 세밀화된 프로그램으로 운영되어 참가자들의 이목을 집중시켰고, 높은 만족도를 보인다. 이론과 현장 경험을 나누는 이 같은 교육은 교육생들이 현업에서 어려움을 헤쳐나가는 데 분명 도움을 줄 것이다.

지역 보건의료체계 구축사업은 하루아침에 완성되지 않는다. 과거의 활동이 현재의 성과로 이어지고, 현재의 노력이 미래에서 꽃피기에 다양한 관점에서 현장의 상황을 바라보고 늘 고민을 거듭해야 한다. 이에 KOFIH는 멈추지 않고, 앞으로도 현지 교육에 힘써 진화를 거듭하려고 한다.

이종욱 펠로우십 초청 연수생의 현지 교육은 현장 실행력을 극대화하여 현지 의료인들이 수준 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게 전문성이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미래 성장’이라는 같은 목표를 품은 이들의 거침없는 꿈의 항해로 에티오피아 보건의료체계는 더 큰 꽃망울을 피울 것이다. 연수생과 교육생 모두에게 응원을 보낸다.

겸손과 사랑을 품고 에티오피아 보건의료에 단단한 성공 신화를 써 내려 가겠다고 다짐한 두 꿈과 만났다.

최고 전문가로 나아가는 도전의 즐거움



아와사대학병원 소속 의공팀장, 2016년도 의공기사 중급과정 수료
멜레세 분쿨라(Melese Bunkula) 교육 강사

짐마 대학교에서 의공을 전공하여 현재
아와사 대학병원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2016년 KOFIH가 아와사 대학병원과 협력하게 되면서
처음 알게 된 이종욱 펠로우십 프로그램은
의공 엔지니어로서 기술력뿐만 아니라, 관리자로서의
역량 강화에도 크게 도움이 되었습니다.
에티오피아는 개발도상국으로서 몇 가지 극복해야 할
부분들이 있지만, 저를 포함한 연수생들은
이종욱 펠로우십 프로그램을 통해 습득한 것들을 이곳에
적용하고자 부단히 노력하고 있고,
에티오피아의 보다 나은 보건의료체계 구축을 위해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종욱 펠로우십 프로그램 중 '의공기사 중급과정'은
매우 만족스럽고 유용했습니다.
에티오피아 보건의료 서비스의 문제점 대부분이
의료기기 관리에 대한 미숙함에서 비롯되는 만큼,
의료기기 관리 분야에 최적화된 커리큘럼을 이수함으로써
이곳 트레이닝 강의에도 면밀하게 적용할 수 있었습니다.
특정 기기에 대한 트레이닝을 더욱 세부적으로 받고자 하는
많은 의공기사에게 제 기술력을 끊임없이 전파할
계획입니다. 에티오피아의 보건의료 서비스가 강화되려면
여전히 의료기기 관리 관련 기술력과 노하우 부족 등의
문제들이 해소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트레이닝 프로그램의 활성화가 꾸준히
필요합니다. 저는 의학 촬영과 같은 특정 기기 분야에
큰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의료기기 관리운영 전문성 강화에 주력하여
에티오피아 보건의료 발전에 기여하고 싶습니다.

나날이 높아져가는 꿈의 온도



아와사 대학병원 소속
엠네 케베데(Emnet Kebede) 교육생

에티오피아 딜라 출신으로, 의공 분야 전공 후
아와사 대학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보다 다양한 의료기기를 접하고 의료기기 관리운영
경험을 늘리고자 'KOFIH에서 주관하는 현지 교육'에
참여했습니다. 아와사 대학병원의 의료기기 유지보수
작업장(워크숍)이 KOFIH의 지원으로 개보수가 이뤄진 적이
있었기에, 이종욱 펠로우십 프로그램을 익히
알고 있었습니다. TOT(Training Of Trainers) 프로그램을
통해 이종욱 펠로우십 프로그램을 수료한 연수생들이
에티오피아 현지의 다른 의공기사들에게 한국에서 배운
지식과 경험을 전수해주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현지에
우수한 기술력과 노하우가 적용될 수 있어 매우 기쁩니다.
현지 교육 프로그램은 전반적으로 만족하는데,
포괄적으로 의료기기 관리 운영법을 배울 수 있어서
가장 좋았습니다. 아직 에티오피아에는 대부분의
많은 의료기기가 현지에서 제작된 것이 아닌,
기증된 것들로 사용되다 보니 의료 상황에 따라 적합한
기기 부족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에 직면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의료기기를 자체 생산할 수 있다면 보건의료
분야의 다양한 문제를 손조롭게 해결할 수 있으리라
기대합니다. 지속적인 현지 교육 프로그램으로 부족함을
채우고 전문성을 키워, 향후 에티오피아 의료기기 성장과
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한껏 포부를 밝힌 두 사람의 얼굴에서는 건강한 에너지가 가득
느껴졌다. 시간과 국경을 초월해도 큰 울림을 전하는 이종욱 사무
총장의 신념 아래, 거대한 에티오피아 땅 모든 곳을 건강하고 활기
차게 만들기 위한 이들의 다짐과 열정은 더 강력해질 전망이다.

전 국민 건강보험 시행 30주년 기념 UHC 국제포럼

더 건강한 미래,
더 큰 성장을 향한

공감과 소통으로



전 국민의 건강보장을 위해 함께 공감하고, 고민하고, 극복해온 숱한 날들이 모여 어느덧 '전 국민 건강보험 시행 30주년'의 기쁨과 성과를 맛보게 되었다.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신성장 동력에 세계가 주목하는 가운데, 전 국민 건강보험 시행 30주년 기념 UHC 국제포럼이 지난 7월 3일 JW메리어트 서울 호텔에서 뜨거운 열기 속에 개최되었다.

글. 이영경 사진. 김도형

30년의 다짐, 30년의 영광

지금 세계는 대한민국을 주목한다. 한국이 세계 최단기간 내 전 국민 건강보험을 달성하였고, 건강보험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국민건강을 선진국 수준으로 향상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지난 1977년 건강보험을 도입한 지 12년 만에 전 국민 건강보험을 달성했고, 올해 30주년 시행이라는 뜻깊은 해를 맞이했다. 지극히 정성을 다할 때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신념으로 달려온 30년. 그 성과를 공유하고자, KOFIH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최하고 보건복지부가 후원한 ‘UHC 국제포럼’에는 WHO(세계보건기구)를 비롯해 WB(세계은행) 관계자들과 가나 건강보험청, 이종욱 펠로우십 연수생들 및 전 세계 참가자들이 함께해 자리를 빛냈다.



함께 걷는 길,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

정미선 아나운서의 사회와 함께 참가자들의 축사로 국제포럼이 시작되었다.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면서 아무리 어려운 일도 힘을 모으면 이룰 수 있다고 운을 댄 추무진 이사장은 개회사를 통해 “KOFIH는 한국의 건강보장 관련 정책 및 제도 운영 경험의 공유를 통해 개발도상국의 보편적 의료 보장 달성을 지원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더불어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오늘 논의되는 데이터 과학과 기술혁신 등은 UHC 달성을 위한 개발도상국과의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용의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는 평균수명 증가와 영아 사망률 감소 등 국민건강을 선진국 수준으로 향상시키는 데 큰 역할을 했다”고 전한 뒤, “2000년에는 지역별로 운영해 오던 다보험자 체계를 단일보험자 체계로 통합해 관리 운영의 효율성을 강화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나라의 경험은 보편적 건강보장을 달성하고자 하는 개발도상국들에 좋은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은 “문재인 케어의 경험과 노력이 국제사회 보건의료 발전에 중요한 시사점이 될 것”이라며 “건강보험제도가 단순히 외형적 UHC를 넘어 내용상으로도 보다 안심할 수 있는 포괄적 형태의 제도로써, 국제적으로 더욱 성숙되기를 기대한다”는 환영사를 전했다. 더불어 “대형병원 환자 집중 현상 등에 대해 종합적인 방안으로 의료계와 협의하겠다”고 약속했다.

개도국의 보편적 건강보장 실현을 향해

내빈들의 진심 어린 축하와 기념촬영에 이어 시작된 첫 번째 세션에서는 ‘한국 전 국민 건강보험의 의의와 영향’에 대한 주제로, 김양희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연구위원과 변진옥 제도재정연구센터장이 한국의 건강보험제도 경험과 다양한 성과를 공유했다. 또한 노연숙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부연구위원이 보편적 의료보장 확대를 위한 전 국민 보건의료 빅데이터의 효과적인 활용 방안에 대해 발표하는 시간도 마련됐다.

변진옥 제도재정연구센터장은 “대한민국의 사례를 통해 국제사회의 UHC 달성에 기여하는 것이 목적인 만큼, 국가별 니즈에 맞는 맞춤형 국제협력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한층 심화된 연구를 통해 계획·수행·평가라는 선순환이 마련돼 평가모델 개발에도 힘을 쏟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UHC 달성을 위한 국제협력방안’을 주제로 하여 국제 전문가들과 UHC를 달성하려는 국가들을 지원하기 위한 전문지식 교류와 협력방안을 주도적으로 모색하는 대화의 장이 펼쳐졌다. 발표자로 나선 권순만 서울대학교 교수는 한국과 가나 건강보험제도 협력사업 성과를 필두로, 아시아 국가별 재원 조달, 재원의 풀링 등을 언급하며 UHC 실현을 위한 성과와 과제를 제시했다. 그는 제도 개선에 있어 “적극적인 시민참여에 의한 의사결정의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한편, 세계은행 데이비드 윌슨(David Wilson) 국장과 세계보건기구 코디네이터 조셉 쿠친(Joseph Kutzin)은 보건 재정개혁과 혁신에 기반한 보편적 건강보장의 실현 전략의 필요성에 대해 언급했다. 가나 건강보험청 벤자민 쿠시(Benjamin Kusi) 국장은 한국과의 협력사업 성과를, 캄보디아 세계보건기구 사무소 쿠마난 라사나단(Kumanan Rasanathan) 코디네이터는 일차 보건의료 강화 사례를 공유하며 KOFIH의 지속적인 협업에 감사 인사를 전하고, UHC 달성의 기대감을 증폭시켰다.





지속가능한 성공의 틀을 그린다

저소득 국가들의 보편적 건강보장 달성을 위해 국제적으로 다양한 지원 방안을 논의하고, 소통과 화합으로 더 나은 보편적 건강보장의 미래를 품으려는 참가자들의 열정은 쉽 없이 불타 올랐다. 권순만 교수가 좌장으로 진행한 종합토론 부문에서는 지난한 대한민국 30년의 성장을 발판 삼아, 각국 참가자들이 한국의 비공식 부문 문제 해결의 궁극증과 더불어, 보편적 건강보장의 역할과 발전 방향에 대한 국가별 맞춤형 솔루션 마련에 관해 열띤 자유토론을 전개했다.

온종일 치열하게 진행된 UHC 국제포럼은 그간의 정책 성과와 한계를 날카롭게 평가하고, 미래 발전 방향과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심도 있게 모색함으로써 보편적 건강보장 개혁의 커다란 희망의 불씨가 되어주었다.

UHC 달성을 향해 지속 가능한 성공의 틀을 만들어내며 더 큰 도약을 준비하려는 각국 보건인들의 열의가 빛나는 소통의 현장에서 이들이 함께 그려갈 내일이 기대되었다.



● 벤자민 쿠시(Benjamin Kusi) 국장 | 가나 건강보험청

KOFIH와의 공동사업으로 새로운 솔루션을 제시하다

가나의 경우 건강보험 등록기관이 너무 많다 보니 가입자 수가 정제되는 문제가 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2015년부터는 KOFIH와 공동 시범사업을 운영함으로써 모바일 등록·갱신 등의 새로운 솔루션을 제시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더 많은 사람에게 건강보험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꾸준히 연구를 진행하여 커뮤니티 가입을 증가시키고, 4인 이상 가구의 건강보험료를 할인해주며, 정보교육 커뮤니케이션 방안을 제공하여 가입자 수 증대와 등록률 향상이라는 긍정적인 성과를 얻었습니다. 앞으로 가입자나 건강보험이 필요한 이들에게 양질의 일차 보건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집중할 예정입니다.

물론 재정적인 부담에서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지만, 한국의 성공 사례를 거울 삼아 UHC 달성을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입니다. 국제포럼에 초청해준 KOFIH에 감사드리고, KOFIH와의 협력을 바탕으로 착실한 성장을 차근차근 이뤄나가겠습니다.



● 쿠마난 라사나단(Kumanan Rasanathan) 코디네이터 | 캄보디아 세계보건기구 사무소

KOFIH와 더불어 일차 보건의료체계 구축에 앞장서다

캄보디아에서는 WHO와 KOFIH가 2012년부터 협력 사업을 진행해왔습니다. 현재 모자보건·건강 증진을 위한 메시지 전달, 관련 인력들의 역량 강화, 지역의 지도층들과 협력하는 방안 등 다양한 형태로 협력 사업이 진행되는데 지역을 기반으로 실시된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모자보건 서비스의 효율성과 수준을 높이기 위한 노력에 힘을 보태고, 인프라나 장비 지원, 교육활동, 조산사 교육, 이종육 펠로우십 프로그램과 연계된 여러 활동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KOFIH와 WHO의 협력사업이 국가정책이나 전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수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보건부에서도 지역 기반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고, 이를 통한 시사점을 국가적인 전략이나 정책 마련에 활용할 수 있는 것도 강점이라고 여겨집니다.

아직 여전히 많은 사람의 산전·산후 관리가 힘든 상황이라, KOFIH와 협력을 지속하고 예산을 확대하여 일차 보건의료체계 확립에 열정을 쏟고자 합니다. 저 또한 향후 지역과 정책적으로 연계해 현지 참여를 강화하고 활성화하는 데 매진하겠습니다. 항상 곁에서 함께해주는 KOFIH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글. 조병희 교수(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아프리카의 밝은 내일을 채색하는



더 큰 도약의 시작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는 경제발전이 많이 뒤처지고 있고 건강 상태가 상당히 열악한 실정이다. 평균 수명이 60세 전후에 머물러 있어서 ODA(공적개발원조) 보건사업의 수요도 많은 지역이다. 새천년 개발목표(MDG)나 지속가능개발목표(SDG)의 실행에 따라 주요 건강지표가 빠르게 좋아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출생아 10만 명당 산모 사망자 수를 의미하는 모성사망비가 1990년에 987명이던 것이 2015년에 546명으로 급속하게 감소했다. 그러나 세계 평균 216명에 비하면 아직 두 배 이상 높은 수준을 보인다. 이처럼 보건사업이 쟁점이 되는 아프리카 지역에서 끊임없이 진화를 거듭 하며 더 큰 도약을 준비 중인 KOFIH의 활약과 역할을 살펴보겠다.

가나에서 쏘아 올린 눈부신 모자보건 성과

KOFIH는 아프리카의 에티오피아, 우간다, 가나, 탄자니아 등 여러 나라에서 모자보건증진 사업을 실천해 왔다. 그리고 상당한 성과를 올렸다. 가나의 볼타지역에서 시행된 모자보건증진 사업의 경우 대표적 사례가 될 만하다. 특히 볼타강 안쪽에 위치한 벽촌인 크라치 웨스트 지역의 경우 사업이 처음 실시 되던 2014년만 해도 가나 전체에서 가장 낙후된 모자보건 지표의 수준을 보였으나 2018년에는 상위권에 이를 정도로 성과를 높였다. 여기에는 몇 가지 요인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첫째, 지구 보건국장 또는 병원장이 리더십을 발휘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직원들을 독려하는 것이 중요했다. 둘째, 조산사 등 보건요원의 역량을 강화하여 서비스 수준을 높인 점이다. 셋째, 보건소와 병원의 기초적 시설과 장비에 대한 개선이 있었다. 사실 사업 초기에는 허물어져 가는 보건소 건물을 보수하거나 분만대를 개선해 주는 등 시설 개선에 주력했지만, 주민들의 이용이 획기적으로 증가하지는 못하고 있었다. 필자는 주민들과의 심층 면담을 통해서 임산부들이 출산 전후에 대기할 공간 없는 점이 주민들의 이용을 꺼리게 만드는 요인을 밝혀냈다. 또한 보건소 건물은 개수되었지만, 그곳에서



근무할 조산사 등의 숙소는 없기 때문에 보건소가 비어 있기도 했다. 따라서 보건요원을 위한 숙소를 설치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제언을 했는데 이러한 점들이 제대로 반영되어 숙소 건립이 이뤄졌다. 그 결과 조산사들의 근무 지원이 크게 증가했다. 깨끗하게 개선된 시설에 필수적 장비를 갖추고 있고, 조산사가 항시 근무하게 되면서 주민들의 이용은 크게 증가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온 것이다.

수원국의 열성과 KOFIH의 열정은 시너지를 내고

KOFIH의 프로그램은 보통 4-5년으로 비교적 짧은 편이다. 이렇게 짧은 기간 안에 괄목할만한 성과를 올리려면 필요한 지원이 적기에 이루어져야 하고, 이를 수용하여 사업을 실행하는 수원국 관료들의 열성이 맞물려서 진행되어야 한다. 그런데 KOFIH의 전략이 이런 측면에서 유리한 점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타 공여국이나 공여 기관들은 예산 규모도 매우 크고 자체적으로 수요조사(needs assessment)를 실시한 후에 실행 계획을 세우고 나서 수원국에 지원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보니 수원국이 피부로 느끼는 필요와 공여국의 지원이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고, 공여국의 지침대로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사업에 대한 열의도 높아지지 않을 수 있다. 반면 KOFIH의 전략은 수원국의 요청을 기초로 수요조사가 이루어지고 지원계획이

수립되기 때문에 열심히 하고자 하는 수원국 관료들에게는 본인들이 필요로 하는 요소들을 곧바로 지원해줄 뿐 아니라, 사업 성과를 올리기 위하여 함께 논의하고 평가함으로써 이것이 자신들의 사업임을 인식하게 만들어서 사업에 열성을 갖고 임하도록 만드는 효과가 있는 것처럼 보인다. 앞서 언급한 가나의 크라치 웨스트 지역의 사례는 수원국의 열성과 공여기관인 KOFIH의 적절한 지원이 맞물려 그 효과가 두드러졌던 사례로 생각된다.

경제성장에 걸맞은 응급의료체계 구축의 필요성

아프리카는 사회경제적으로 워낙 낙후한 상황이지만, 몇몇 국가들은 상당히 빠른 경제성장을 하고 있다. KOFIH가 지원하는 국가들은 2019년에도 약 6%의 GDP 증가를 이룰 것으로 예측된다.

이것은 현지에서는 도시 지역에서 차량의 급격한 증가로 경험할 수 있다. 그런데 경제성장이 불균형하게 진행되면서 새로운 보건 문제를 야기하게 된다. 즉 도로 교통망이 불비한 상황에서 차량만 증가하다 보니 교통사고가 급증하는 경향이 있다.

또한 여타의 사고와 중독도 적지 않게 발생한다. 우간다에서 진행되고 있는 응급의료체계 구축사업은 이러한 변화하는 아프리카 국가들의 사회적 상황과 새로운 보건문제에 대응하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아직 응급의학 전문의도 제대로 배출되지 못하고 있고, 병원 응급실의 시설도 매우 열악한 상태이다. 훈련된 응급구조 요원도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다. 이러한 상황에서 응급의료체계 구축을 지원해 주는 것은 상당한 의미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건강증진 인식 개선으로, 더 건강한 아프리카로

아프리카는 많은 감염병이 분포된 지역이다. 에이즈나 말라리아의 발생이 많았던 것은 잘 알려져 있다. 현재도 아프리카 중앙에 위치한 콩고 민주공화국(DR Congo)에서 에볼라 병이 발생하여 주변 지역으로 전파되고 있다.

아프리카 국가들이 이러한 감염병에 대응하여 감염 여부를 신속하게 파악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역학적 지식과 기술의 제공이 더 필요해 보인다. 아울러 아프리카에서는 또한 고혈압과 당뇨 등 만성질환의 발생도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금연, 절주, 운동, 균형된 식사 등 건강습관을 기르는 건강증진 운동이 폭넓게 실시되고 있다. 반면 아프리카에서는 건강증진의 개념 자체가 소개되지 않은 것처럼 보인다. 과거의 보건사업이 보건시설과 전문보건인력을 양성하여 제도적으로 보건의료 서비스를 공급함으로써 질병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을 사용하였다면 향후 전략은 주민 개개인의 생활 개선과 건강증진에 자발적 참여를 높이는 방향으로 진행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깨끗하게 개선된 시설에
필수적 장비를 갖추고 있고,
조산사가 항시 근무하게 되면서
주민들의 이용은 크게 증가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온 것이다.



해외 사무소에서 추천하는 아프리카 별미

처음 만나는 맛 있는 아프리카!



미지의 땅 아프리카에는 어떤 음식이 있을까? 나라별
종족 언어 문화가 다른 데다 광활한 대지와 여러 기후로
인해 다양한 음식 문화가 존재할 터. 하지만 평소에 접하기
힘든 만큼 좀처럼 상상되지 않는데! 드넓은 아프리카
대륙에서 나라별로 맛보아야 할 현지 음식을 KOFI 해외
사무소 임직원들이 귀띔했다.

정리, 편집실



가나 사무소 정해진 소장이 추천하는

매콤한 맛이 일품인 볶음밥 '졸로프 라이스(Jollof rice)'

쌀을 토마토 등 양념과 함께 볶은 '졸로프 라이스'는 서아프리카의 주식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쌀 자급률이 낮아 코이카(KOICA)와 코피아(KOPIA)가
함께 쌀 가치사슬 개선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쌀 100% 자급을 달성하여 더욱 많은 사람들이 이 음식을 즐길 수 있기를
기원하는 마음에서 추천해봅니다. 서아프리카에 들리시면 졸로프 라이스
한번 드셔보세요!

우간다 사무소 Kaliisa Ruth 직원이 추천하는

최고의 인기 만점 간식 ‘롤렉스(Rolax)’

밀가루 반죽을 해서 손바닥으로 눌러 얇게 부쳐 낸 차파티(Chapati)에 채 썬 당근, 토마토, 양파를 넣은 달걀 지단을 부쳐 돌돌 말아 먹는 ‘롤렉스’는 남녀노소 누구나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별미 간식입니다. 가격도 한 개에 약 600원(2,000실링)으로 저렴해서 많은 우간다 사람들이 길거리나 식당에서 자주 즐겨 먹습니다. 미국 CNN 방송에서 ‘꼭 먹어야 할 아프리카 음식’으로도 소개된 바 있는 롤렉스! 우간다에 들른다면 한번 맛보세요.

☎ 음식점 : Keba 식당

📍 주소 : 우간다 중앙 보건부 식당(보건부 주변 맛집)

Ministry of Health(Uganda) Plot 6 Lourdel Road, Nakasero, P.O Box 7676, Kampala, Uganda

☎ 연락처 : +256-70-109-9635



에티오피아 사업 담당자 신가영 주임이 추천하는

버터로 찜낸 매운 닭고기 요리 ‘도로 와트(Doro wat)’

‘도로 와트’는 에티오피아에서 매우 유명한 요리로 많은 사람에게 인기 있는 음식입니다. 이 특별한 음식은 공휴일이나 중요한 손님 대접 시에만 먹습니다. ‘도로 와트’는 전 세계 매운 음식 TOP3에 속할 만큼 눈물이 날 정도로 맛이 매운 편인데, 기회가 된다면 꼭 한번 맛보시길 추천합니다!

☎ 음식점 : Dimma Cultural Restaurant

📍 주소 : Sarbet, addis ababa, Ethiopia

☎ 연락처 : +251-11-3200122, www.dimmarestaurant.com



탄자니아 사무소 우원규 소장이 추천하는

일상에서 즐겨 먹는 음식

‘왈리 와 나지 나 쿠쿠(Wali wa nazi na kuku)’

탄자니아 현지 식당에 가면 주로 볼 수 있는 메뉴입니다. 보통 밥(wali)과 코코넛 밀크(nazi)로 요리된 치킨(kuku) 스투를 야채 혹은 나물인 음치차(mchicha)와 먹기도 하고 마하라게(콩조림 스프)와 곁들여 식사를 합니다. 일종의 ‘치킨 덮밥’ 같은 셈이죠. 음치차는 우리나라의 시래기 나물과 비슷하고요, 마하라게는 달콤한 맛이 일품입니다. 도구를 사용해서 먹기도 하고, 그냥 맨손으로 먹기도 합니다. 탄자니아에서는 한국처럼 반찬이나 국 종류가 다양하기보다는 주로 한 접시에 소박하게 담아내어 먹는 편입니다. 후식으로는 오렌지나 바나나 등 열대 과일을 즐겨먹습니다.



함께 꿈꾸고, 뜨겁게 도전하며 달리는 2019 KOFIH

언제나 초심을 잃지 않고 보건으로 발전을 위해 힘차게 달려온
KOFIH의 빛나는 지난날을 돌아봅니다.



주한 아프리카 대사 초청 간담회

지난 6월 18일 KOFIH 8층 대회의실에서는 주한 아프리카 대사 초청 간담회가 열렸다. 디피에 에자코 쿠시(Difie Agyarko Kusi) 주한 가나 대사를 비롯해, 마틸다 스윌라 마수카(Matilda Swilla Masuka) 주한 탄자니아 대사, 모하메드 겔로(Mohamed Gello) 주한 케냐 대사, 가토가 게제(Gathoga Ghege) 부대사가 참석했고, 한·아프리카 재단과 KOFIH가 함께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KOFIH 및 아프리카 사업 소개에 이어 향후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시간이 마련됐다. 현재 KOFIH는 아프리카에서 모자보건증진, 지역보건증진, 결핵 퇴치, 건강 보험 등에 집중하고 있으며 남수단의 경우 국제 NGO를 통하여 난민 보건환경 개선을 지원하고 있다. 추무진 이사장은 “아프리카는 점차 수원국의 입장에서 벗어나 보건은 물론 빈곤 퇴치, 환경, 인권, 거버넌스 등 국제개발의 전 분야에 걸쳐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 거듭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재단과 아프리카의 긴밀한 협력 관계 구축을 희망한다”고 말했다.



2019년 통일보건의료학회 춘계학술대회 개최

지난 6월 21일 2019년 통일보건의료학회 춘계학술대회가 에비슨의생명연구센터 유일한 홀에서 개최됐다. KOFIH와 통일보건의료학회 공동 주최한 이번 행사에는 통일보건의료에 관심 있는 기관 및 전문가, 학생 등 약 120명이 참석해 한반도 전환기에 보건의료영역에서의 개발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추무진 이사장은 ‘남북 보건의료 협력, 어제와 오늘’이라는 주제로 기조강연을 한데 이어, 권준욱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국장이 ‘남북 보건의료 개발협력’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하여 남북 보건의료 협력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미래 나아갈 방향을 함께 고찰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행사는 1부 ‘남북 보건의료 개발협력을 위한 창의적 접근’을 주제로, 2부 ‘통일보건의료 UPDATE’를 주제로 진행되었고, 앞으로 진행될 남북개발협력에 대한 방향과 방법에 대한 논의로 활발한 토론이 펼쳐졌다.

2019년 라오스 건강보험 국제연수과정 및 경험 공유 워크숍

지난 6월 24일부터 28일까지 4박 5일간 2019년 라오스 건강보험 국제연수과정 및 경험 공유 워크숍이 열렸다. 보편적 건강보장(Universal Health Coverage, UHC) 달성을 위한 라오스의 경험 공유 및 역량 강화 지원을 목적으로 진행된 워크숍에는 라오스 보건부 2인이 초청됐다. 이들은 2019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연수과정을 수료하고 2019년 라오스 건강보험 경험 공유 워크숍에 참석했다. 이로써 한국 건강보험제도 및 시스템에 대한 이해 증진과 라오스 현지 적용 및 발전 방향을 논의하고, 보편적 건강보장 달성을 위한 라오스 건강보험제도 및 시스템 공유와 제단과의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또한 연수생 대상 건강보험 국제연수과정 만족도 조사결과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은 바 있어 향후 긍정적인 영향을 기대한다.





우간다 응급의료 장비 기증식

지난 6월 25일 우간다 마사카에서는 KOFIH가 앰블런스, 초음파 및 모터사이클 등 응급환자 운송 및 치료에 필요한 응급의료 장비 (약 4억 원 상당)를 우간다 보건부에 전달하는 기증식이 개최되었다. 우간다는 높은 교통사고 및 응급환자 발생률에도 불구하고, 전문 인력, 무료 응급신고 전화, 공공 이송수단, 의료시설 및 장비 등을 포함한 기초적인 응급의료 대응체계가 전혀 없어, KOFIH가 지난 2017년부터 마사카 및 부코만심비 지역을 중심으로 지역사회 응급의료체계 강화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 이날 기증식에는 에드워드 키와누카 세칸디 우간다 부통령을 비롯하여, 제인 루스 아첵이 보건부 장관, 하병규 주우간다 대사 등 정부 주요 관계자 및 지역사회 핵심 인사 등 약 200여 명이 참석했다. 세칸디 부통령은 “자칫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긴급 상황에서 제대로 작동되고 있는 응급의료서비스의 제공은 매우 중요한 사안이며, 한국보건의료재단의 지원 사업은 우간다의 보건의료 서비스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를 밝혔다.



재단 미션·비전 수립 임직원 워크숍

지난 6월 27일 서울자유시민대학 시민홀에서는 KOFIH 미션·비전 수립 임직원 워크숍이 열렸다. 재단 미션·비전 수립 기반 마련을 위해 열린 워크숍에는 재단 임직원 및 외부 전문가 69명이 참석했다. 먼저 ‘보건의료분야 ODA 전략 마련 연구 보고회’가 열려 KOFIH 보건의료분야 ODA 5개년 전략 공유 및 의견 청취가 이뤄졌다. 또한 ‘이종욱 펠로우십 프로그램 통합적 질 제고 방안 연구 최종보고회’에서는 연구 결과를 공유하고 추후 적용 방안을 논의하는 시간을 마련했다. 재단 미션·비전 수립을 위한 자유토론에서는 5개 주제(노동·삶의 질 제고, 북한·재외동포, 비영리단체 연대방안, 재단의 미래, 성과평가)에 대한 임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한편,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의 강의를 통해 사회적 가치 증진을 위한 공공기관의 역할을 모색하고, 임직원 간담회에서는 토론회 결과에 대한 논의 및 의견사항을 수렴하는 시간을 가졌다.





2019년 탄자니아 동문회 총회 및 에티오피아 동문회 개최

지난 7월 12일 탄자니아 다르에스살람 세레나 호텔에서 이종욱 펠로우십 초청연수 수료생 등 50여 명을 대상으로 ‘탄자니아 KOFIH 글로벌 동문회(KGA: KOFIH Global Alumni) 총회’를 개최했다. 이번 총회에는 주탄자니아 대한민국 대사관 조태익 대사, 탄자니아 KOFIH 사무소 우원규 소장 등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탄자니아 측에서는 무힘빌리 의과대학병원 줄리에스 마간디(Julieth Magandi) 부병원장, 동문회원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날 행사는 조태익 주탄자니아 대한민국 대사의 축사를 시작으로 줄리에스 마간디 부병원장의 환영사, 2018년 KGA 활동 보고 및 우수그룹 시상, 2019년 KGA 운영위원 선출, 2019년 동문회 활동을 위한 토론회로 진행됐다. 또한 지난 7월 17일 에티오피아 현지에서는 동문 30여 명을 대상으로 초청해 그간의 활동 결과를 공유하는 동문회 총회를 개최했다.





에티오피아 현지 심장수술 역량 강화 사후컨설팅

지난 7월 14일부터 18일까지 KOFIH는 서울대 의과대학 이종욱 글로벌의학센터와 함께 에티오피아 현지에서 2018년 이종욱 펠로우십 프로그램의 임상과정 사후관리 컨설팅을 추진했다. 사후관리 컨설팅은 초청연수 종료 후 연수생들이 귀국한 후에 추진되는 사후 교육이며, 지도교수들이 연수생의 소속기관을 방문하여 연수 내용을 현업에 적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자 진행되고 있다. 특히 이번 방문에서는 심장질환 환자진료, 수술, 환자케어 등 에티오피아 현지 의료진의 역량 강화를 위해 한국 의료진과 현지 의료진이 팀을 이뤄 교육을 실시했다. 이러한 현지 연수의 일환으로 에티오피아 아디스아바바 대학교 부속 병원을 방문하여 선천성 심장질환을 앓고 있는 어린이를 진단하고, 10명의 환자를 공동 수술했다. 그 결과, 난치성 심부전으로 5개월간 인공호흡기를 부착하며 폐렴과 패혈증을 동반했던 생후 10개월 에미카엘 타미랏트(Yemichael Tamirat)의 수술이 성공적으로 진행돼, 호흡기를 떼고 건강하게 회복되는 큰 성과를 얻었다.



2019년 KOFIH Letter 봉호를 읽고 많은 분들이 엽서를 보내주셨습니다. 독자 여러분의 좋은 말씀, 소중한 의견을 기억하며 더 나은 KOFIH Letter를 만들어가겠습니다.

● KOFIH Letter 봉호 당첨을 축하드립니다

강대길 (인천 남동구)
강병국 (서울 강동구)
김혜린 (경기 시흥시)
도성열 (대구 달서구)
유나라 (충북 괴산군)
전기홍 (경기 김포시)
정명진 (서울 강남구)
조항원 (경기 의정부시)
지서영 (전남 여수시)
홍경석 (대전 서구)

※ 당첨되신 분들에게는 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원고 접수

<KOFIH Letter>에 하고 싶은 이야기를
독자엽서에 자유롭게 써주세요.

보내실 곳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산대로 207, 3층
KOFIH Letter 사보 담당자 앞

함께 만드는 KOFIH Letter 독자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립니다

강대길(인천 남동구)

KOFIH Letter가 매력적인 이유는 흥미 위주의 기사가 아닌 진심을 담아 만든 마음 따뜻한 소식지라는 거예요. 차분히 소식지를 읽어 내려가다 보면 작고 사소한 것이라도 소중하게 여겨지고 나눔과 봉사를 실천해야겠다는 마음이 절로 듭니다. 읽는 내내 마음이 따뜻해지는 느낌이에요.

김혜린(경기 시흥시)

봉호 곳곳에 실린 이종욱 사무총장의 사진이 무척 인상 깊었습니다. 소외된 이들에게 진심으로 따뜻한 미소를 보내는 이종욱 사무총장의 모습이었습니다. 아픈 이들에게, 소외된 이들에게 진심을 전한 이종욱 사무총장의 뜻을 이어받아 이종욱 펠로우십 프로그램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KOFIH가 더욱 힘써 주기를 바랍니다.

정명진(서울 강남구)

오랜만에 만난 KOFIH Letter를 통해 이종욱 사무총장의 생애를 들여다 볼 수 있었던 게 가장 큰 감동이었습니다. '아시아의 슈바이처'로 불리며 질병 퇴치의 간절함으로 바른 길을 이끈 그 분의 궤적은 저에게도 언제나 마음 한 곳에 자리잡고 있을 것입니다. KOFIH Letter 진심으로 반가웠습니다.

조항원(경기 의정부시)

이종욱 사무총장을 그리는 다양한 특집 기사를 반갑게 읽었습니다. 저 역시 이번 기사를 통해 사무총장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추모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을 가질 수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이종욱 사무총장이 야말로 편견과 차별을 깨고 한평생 소외된 이들의 건강한 삶을 위해 열정을 다하신 희망의 아이콘임이 틀림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췌록 사무총장의 뜻을 이어받은 후배들이 묵묵히 그 길을 따라 걸으며 질병 없는 건강한 지구촌을 만드는 데 앞장서길 기대하고 응원합니다.

강병국(서울 강동구)

더 많은 이종욱을 탄생시킬 이종욱 펠로우십 프로그램이 참 인상 깊었습니다. 앞으로도 더 좋은 세상을 만들 제2의 이종욱들의 활약을 기대합니다. 기억하고 기록하는 것이 모두에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종욱 사무총장이 남긴 유산을 바로 그의 길을 기억하고 기록하고 널리 따르는 것이겠지요.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커지고 체계화되는 모습을 기쁘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더 좋은 세상과 행복을 만들어가는 KOFIH 분들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개인정보 유출 시 필수 조치요령

Korea Internet & Security Agency

01

신속 통지

▶ 유출된 정보주체 개개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

| 시 한 | 유출되었음을 알게 되었을 경우 지체 없이(5일 이내)

- | 통지항목 |
- 1 유출된 개인정보의 항목
 - 2 유출 시점 및 그 경위
 - 3 피해 최소화를 위한 정보주체의 조치방법
 - 4 기관의 대응조치 및 피해구제 절차
 - 5 피해 신고 접수 담당부서 및 연락처

02

긴급 조치

▶ 피해 최소화 위한 대책 마련 및 필요한 조치 실시

| 접속경로 차단, 취약점 점검·보완, 유출된 개인정보의 삭제 등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필요한 긴급 조치 이행

| 긴급 조치 이행 등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전문기관에 기술지원 요청

03

대량 유출

▶ 1천 명 이상 유출된 경우 유출 통지 결과를 신고하고 홈페이지에 공지

| 1천 명 이상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 유출 통지 및 조치 결과를 지체 없이
행정자치부 또는 전문기관(한국인터넷진흥원, www.privacy.go.kr)에 신고

| 1천 명 이상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 개별 통지와 함께 유출된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7일 이상 게재



행정자치부



한국인터넷진흥원

물만 묻히면

세균이는
안 떨어져요!



발행년월 : 2019.3.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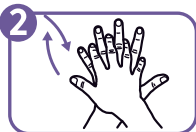
비누거품으로 꼼꼼하게

손만 잘 씻어도 많은 감염병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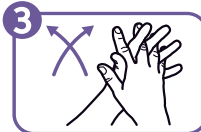
손씻기 6단계



손바닥



손등



손가락 사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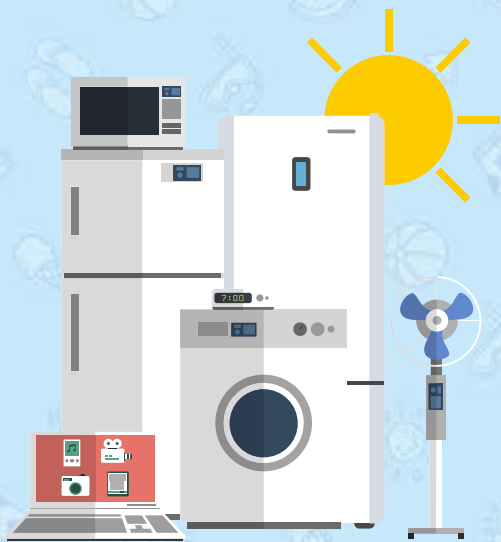
두 손 모아



엄지 손가락



손톱 밑



여름철 절전요령



대한민국이
똑똑해지는
에너지
절약습관
6가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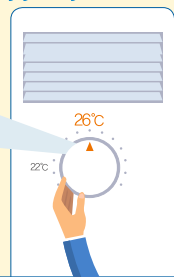
1 여름철 실내온도 26℃ 유지

1℃↑높일때

4.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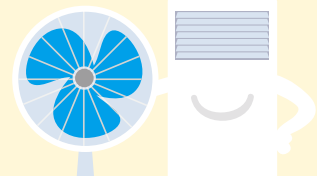
설정온도 22℃에서
1℃↑높일때마다
전력사용량
4.7%↓씩 절감

※냉동공조인증센터



2 에어컨과 선풍기 함께 사용

에어컨(강풍) 대신
에어컨(약풍)과 선풍기(미풍)을 함께 켜면
20~30% 가량 전력절감



3 에어컨 필터 2주마다 청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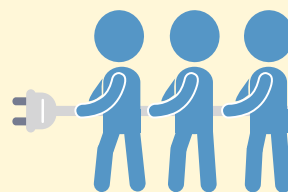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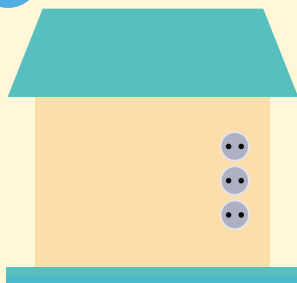
에어컨 필터 청소시

5~15%

가량 전력절감

※美 에너지부

4 사용하지 않는 플러그 뽑기



연간 가정에서 1인당 평균 대기전력 **38.3kWh** ※전기연구원

5

STOREFRONT



문 열고 냉방영업 자제

문닫고 냉방시 문열고 냉방 대비

약 **66%** 냉방전력 절감

※한국에너지공단

6 영업종료 후 광고조명 소등



간판 1개 소등시 시간당

0.5kWh 전력절감

※상가 옥외간판조명 소비전력 실태조사